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들”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206-362-2278 | 연령회: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홍광철 세례자 요한

## 유혹이란?

유혹(誘惑)이란 남을 꺾어서 그릇된 마음을 품거나 그릇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마음을 잊게 만들고, 순수함과 정의에서 버성나 좋지 않은 길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행동을 하려는 내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매번 똑같이 생각하지도 않고, 매번 똑같이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할 때 처한 상황이 늘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유가 있고 마음이 풍요로울 때는 의로운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얼마나 너그러운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는 상대방의 기분이 좋을 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짜증과 조급함이 생겨나고,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미워하고 서운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여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언제나 똑같은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마음의 평정심을 갖기도 힘들고, 언제나 너그러게 행동하기도 쉽지 않으며, 늘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결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의 수요일에 사제는 “사람아,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라고 말하며 머리에 재를 얹어 줍니다. 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흠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믿음이 있던 이들도 어느 순간 유혹에 넘어가 그 믿음을 잃게 되고, 의로운 길을 걷던 이도 어느 순간 그 길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유혹은 그렇게 밀려와서 나를 흔들고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한 번 결심한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인내와 희생이 필요한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려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려 할 때 생겨나는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갈등하던 나의 모습과 나약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마음을 자꾸 기억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키우기 위해서 육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내 의지대로 통제가 될 때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통제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고행과 단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광야로 나가 시어 40일간 단식하셨습니다. 이때 악마는 빵으로, 권력과 명예로, 재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십 일 간 단식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은 너무도 달콤한 유혹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이 예수님께는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모든 것이 유혹임을 알고 계셨고,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드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차라리 단식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얻어서 구원사업을 펼칠 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굳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또 악마에게 절하여 재물을 얻으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굳이 인간이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유혹은 그저 유혹일 뿐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기에 달콤한 유혹을 단호하게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유혹 앞에서 너무도 자주 갈등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 앞에서 처음의 마음을 너무도 자주 잊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것과, 지금까지 기쁘게 해 왔던 것을 고민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포기하게 만듭니다. 의인은 성실함으로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그 성실함은 고통 속에서도 드러나야 하고, 기쁨 속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렵다 하여 다른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의로운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유혹과 유혹 사이에서 방황하다가도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내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 육신의 한계를 체험하기 위해 도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은 매력적입니다. 너무도 달콤합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과 갈등 속에서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 미사 안내

**주일미사** (토요일 저녁) 오후 7:30  
 (주일) 오전 8:00 / 10:00  
 오전 11:30 (학생)  
 오후 6:00 (청년)

**월** 오전 10:00  
**수/목/금/토** 오전 10:00  
**화/수/목/금** 오후 7:30

### 성사 안내

**환자 봉성체** 매달 첫 목요일 오전  
**병자성사** 구역장을 통해 신청  
**성체강복** 매달 첫 목요일 저녁미사 후  
**예비신자교육** (주일) 오전 8: 20

### 학교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00  
**YG(고등부)** (주일) 오전 10:00  
**한국학교** (금) 오후 7:00  
 (토) 오전 9:30  
**안드레아 문화대학** (주일) 오후 1:00-4:00

## 사순(四旬)시기

사순시기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40일을 보내는 시기를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3세기 초까지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부활절전 2-3일간 예수님의 수난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니체 아 공의회(325년) 이후 40일로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리오 교황시절부터 재의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일로 정착되었습니다.

### 1. 40일이라는 기간의 의미

- 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단식하며 기도했던 기간(마태4,1-11)
- ② 노아 시대에 홍수로써 새 세상을 준비하는 데 걸린 시간(창세6,5-7,22).
- ③ 이스라엘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에서 준비해야 했던 기간(신명29,4).
- ④ 모세가 하느님의 계명을 받기 전에 시나이 산에서 지켰던 재의 시간(신명9,18)
- ⑤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가기 위해 걸었던 기간(1열왕19,7-8)
- 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 머무셨던 시간(사도1,3)

40이라는 숫자는 참회와 속죄로 삶의 변화를 촉구하며,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2. 사순시기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

재의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은 사순 제 1주일 전 수요일을 말합니다. 이날은 교회가 미사 중에 참회의 상징으로 재의 축성과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행하는 데서 재의 수요일이란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재의 수요일에는 그 전해의 주님 수난 성지주일(성지주일)에 축성한 종려나무나 다른 나뭇가지를 한곳에 모아 불에 태워서 만든 재를 사제가 축성하여 신자들의 머리 위에 십자모양으로 바르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창세3,19), 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1,15).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영원한 삶을 구하라는 장엄한 외침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라도 타버리고 나면 재밖에 남지 않습니다. 재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 재를 머리에 얹는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에 집착을 해 봐도 타고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재만 남으니 변하지 않는 분, 오직 한분이신 하느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혹시 내가 교만하여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재를 얹으면서 용서를 청하고 참되게 살아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재의 수요일은 교황 성 그레고리오 1세(재위:590-604)에 의해 사순절의 첫날로 성립되었고, 바오로 6세(재위:1963-1978)는 이날 전 세계 교회가 단식과 금육을 지킬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만 18세부터 60세까지의 신자들은 하루 한 끼 단식을 하며 만 14세부터의 모든 신자들은 금육을 지킵니다. 단식과 금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자신의 육체적 의지를 다스리며, 그 공로를 예수님께 봉헌하고, 단식과 금육을 통하여 절약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3. 사순시기의 기간

사순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대축일전까지의 기간 중에서 주님

의 날인 주일을 뺀 기간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주님의 날이기에 넣지 않습니다.

6주간×7일-6일(주일)+4일(재의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40일

### 4. 사순시기의 전례적 특징

- ① **재를 얹는 예식:** 재의 수요일에 머리에 재를 얹으면서 회심과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게 합니다.
- ② **사제의 제의:** 보라색으로 바꿉니다. 보라색은 속죄와 회개를 의미하는 색입니다.
- ③ **알렐루야와 대영광송:**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고, 참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알렐루야와 대영광송을 바치지 않고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 ④ **단식과 금육:** 재의 수요일과 모든 금요일에 금육을 하고,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한 끼를 단식 합니다. 단식과 금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나를 희생하고 절제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노력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 단식과 금육을 통해 모아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사랑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 ⑤ **십자가의 길:** 평상시에도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하지만 사순 시기에는 특별히 금요일에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 ⑥ **판공성사:** 부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공성사를 봅니다.
- ⑦ **주님 수난 성지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면서 성지가지를 축성하여 행렬합니다. 그 성지가지는 집으로 가져가 내년 재의 수요일 전까지 십자가 뒤에 걸어 둡니다.
- ⑧ **성주간:**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수난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성주간에는 성유축성미사와 만찬미사, 수난감실에서의 조배, 십자가 경배 예절 등을 거행합니다.
- ⑨ **성유축성미사:** 성 목요일 아침에는 주교가 사제단과 미사를 공동으로 집전하면서 성유를 축성합니다. 이 성유는 한 해 동안 베풀어지는 성사에 사용됩니다.
- ⑩ **만찬미사:** 예수님께서 하신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과 같이 사제는 신자들의 발을 씻어 줍니다. 보통 선발된 12명의 신자들의 발을 씻어 줍니다.
- ⑪ **수난감실에서의 성체조배:** 만찬 미사가 끝난 후 사제는 감실의 성체를 따로 준비된 수난감실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구역이나 단체나 개인별로 한 시간 씩 밤을 새워 가며 성체조배를 합니다.
- ⑫ **십자가 경배 예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신앙인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믿고 있습니다. 성목요일 저녁 미사 후 성체를 수난감실로 모신 후에 제대는 벗겨지고, 감실은 열리고, 십자가는 자색 천으로 가려집니다. 금요일 십자가 경배 때는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보라! 십자나무! 세상구원이 달려네.”하고 사제가 노래하면 “모두 와서 경배하세”하고 응답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인들의 눈에는 구원으로 보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은 예절입니다.
- ⑬ **일년 중에 미사가 없는 날:** 성 금요일과 성토요일에는 미사가 없습니다. 부활성야미사는 성 토요일 미사가 아닙니다.

## 영광스러운 곳에 머물기를 청하는 베드로 사도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자들을 대표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남으로써 율법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율법과 예언서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을 폐지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오셨고, 옛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할 예언은 메시야가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예언된 모든 것들은 이루어져야 하며, “수난과 죽음”앞에서도 굳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신 대로 수난과 죽음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놀라운 광경에 너무 매료되어 함께 머물기를 청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동료들과 함께 이 기쁨 속에서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마르9,5)

베드로 사도는 큰 기쁨 속에 있었기에 자신들의 처지는 생각

하지 않고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 머물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고생했던 모든 보상을 한 순간에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기다리던 영광의 순간이 시작되어 자신들에게도 영광이 주어지리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머물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편안함 속에 머물고자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걷으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세상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 기쁨으로 힘을 얻어 다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청원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청원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만족을 위해 주님께 청하기보다는 주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청해야 합니다.

가끔은 신앙인들도 맛을 찾아서 해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가니까 좋더라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 가니까 기도가 효험이 있더라 하면 그쪽으로 몰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주는 맛에만 중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 맛을 통해서 그분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기쁨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난과 죽음 앞에서 힘을 내라고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할 때 어떤 맛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손과 발이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공동체 소식

## 2018 사순시기에는

•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시작한 사순시기를 더욱 의롭고 경건하게 보내 봅시다. 또한 재의 수요일에 재를 받은 사진을 매일 한 번씩 보시면서 첫날의 결심들이 이어가보시기 바랍니다.

### ① 사순시기의 나눔

사순시기 동안 절제한 것들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모원의 미혼모들을 위해서 보내겠습니다.

### ② 사순시기 동안 가족과 함께 한번 십자가의 길

가족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 보신다면 가정의 평화와 사랑이 커지고, 대화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한 번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 ③ 구역 별 판공에 참여합시다.

### ④ 3월 19일(월) 성 요셉의 밤

저녁 7:00부터 시애틀 교구 신부님 두 분이 오셔서 영어로 성사를 주십니다. 우리 는 한국어로 성사를 보게 됩니다.

## 3월 아치에스 행사

- 일시: 3월 18일 오후 12:50분부터
- 장소: 본당
- 참석 대상: 전 레지오 단원과 협조단원

아치에스 행사 참석은 모든 레지오 단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모두 한복으로 예쁘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 영어 예비자 교리반 개설

- 영어로 예비자 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날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어로 교리 재교육을 원하시는 분들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교사: “엘” 형제님

## 사순 판공 일정

날짜	구역 및 시간
3월 4일(주일)	머킬티오 5PM
3월 17일(토)	레드몬드 5PM
3월 18일(주일)	에버렛 5PM
3월 21일(수)	K-APT 2PM
3월 22일(목)	쇼어라인 6PM
3월 23일(금)	에드먼즈 6PM
3월 24일(토)	벨뷰 5PM

### 1분 교리

##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닙니다.(야고1,13) 유혹은 하느님께서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귀가 나를 하느님께서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덕을 행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기회, 곧 시련을 뜻 합니다. 이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이겨낸 공덕도 크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도 이런 의미를 지닌 유혹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악으로 유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 이 정도는 해도 돼” 하면서 조금씩 죄로 유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다처럼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과 같이 “사탄아 물러가라!”하고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셉이 포티파르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냅다 튀듯이” 그렇게 도망치는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